

# ‘봄날경제’ 문화관광소비 진작

## — 청명 연휴 국내 관광객 1억 1,900만명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청명 연휴 3일간 전국 국내 관광객수가 연인수로 1억 1,900만명에 달해 2019년 동기 대비 11.5% 늘었으며 국내 관광객 소비는 539억 5,000만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 12.7% 늘었다.

각지 공공문화관광대민행사가 꾸준히 새로운 내용으로 꾸며지면서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웠고 ‘봄날경제’는 문화관광소비의 새로운 활력을 진작시켰다.

청명 연휴 기간 강서성 남창 8.1 봉기 기념관에서는 ‘영웅열사들을 기리며—목련청명제’ 온라인·오프라인 주제 행사를 조직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혁명관광을 선물했다.

강서성 상요 만년령의 왕가향 산하촌 천무 차밭에서 관광객들은 차를 따는 재미를 만끽, 산하촌은 재배, 채취, 가공, 차문화교류를 일체화한 종합적인 차문화관광체를 형성했다. 모 차밭까지 책임자인 서영봉은 올해 우리 백차기지에서 매일 8,900근의 차를 따다. 또 차를 따는 체험관광을 힘써 발전시켜 차밭을 관광 체험을 융합한 재배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청명 연휴 기간 상해 관광 주문량은 동기 대비 128% 늘었다.

상해의 많은 특색거리들도 휴일 기간 다양한 주제 특색 시장과 캠퍼스 등 행사를 조직했는데 이를테면 양포구 5각장 상권의 대학로에서는 예술화 창작과 꽃시장을 배경으로 봄날의 ‘꽃 속의 그림’이라는 특색 시장을 선보였다.



▲ 자료사진

주어 음악여행, 건강여행, 필목여행을 비롯한 주제관광을 조직해 관광객들의 레저관광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문화레저산업연구센터 주임 오승중은 계절과 문화관광이 서로 결부되어 ‘봄날경제’가 독특한 풍채를 보이게 했다면서 꽃구경, 봄나들이, 미식, 친척방문 등 국내 관광 열기가 지난해 청명절을 훨씬 초월하고 계절성 소비가 특별히 인기를 모으면서 야외 불고기, 차와따기, 차 앞재배단지 수확여행 등이 호황을 이루었고 2023년 청명절 기간보다 240%나 늘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보면 관광객수 인상폭이 50%가 넘는 목적지 도시로는 각기 태안, 치박, 천수, 개봉, 경덕진이었는데 이 가운데 갑속성천수 관광 주문량은 동기 대비 21배나 더 늘었고 산동성 곡부, 하남성 개봉 등지의 관광객수도 크게 늘었다. 각지에서는 현지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동원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관광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꾸준히 형성하였다. 중국 미디어대학 문화산업관리학원 집행원장 장홍생은 문화와 관광은 날로 더 심층 융합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현지 풍경구에 문화 표적을 달아주면 데로부터 문화체험, 문화감수, 문화참여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인민방송국

## 청명 기간 연인원 518.9만명 출입경

국가이민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명 연휴 기간 전국 변경검사기관은 연인원 518.9만명의 중외 인원 출입경을 보장했는데 일평균 연인원 173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6% 성장했다. 그중 향향—오문—대만 주민 출입경이 연인원 226.7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9% 성장하고 내지 주민 출입경이 연인원 242.2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1.7% 성장했으며 외국인 출입경이 연인원 50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3.2% 성장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전국 변경검사기관은 ‘두가지 공포, 한가지 제시’ 요구를 엄격히 락착하면서 본 통상구 출입경 류동량 정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제때에 발표하여 광범한 출입경인원들이 합리하게 일정을 안배하고 안전하게 출행하며 질서 있게 출행하도록 안내했다. 중국공민통관 대기시간 30분 이하 요구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검사통로를 충분히 개통함으로써 통상구 통관의 효율성과 원활함을 확보했다. 귀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향향—오문—대만 주민 인수가 많아지고 로인들이 많은 등 실체에 비추어 전문검사통로를 설치하여 출입경에 편의를 제공한 동시에 특수돌봄이 필요한 로인, 어린이 및 기타 거동이 불편한 여행객을 위해 도움을 제공했다. 청명 기간 전국 통상구 통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원활했다.

/ 인민넷

## 중국 옛 거리, ‘휴일경제’에 활력 불어넣어



▲ 5일 부용거리를 찾은 관광객들

청명절 연휴 기간 산동성 제남시 곡수정, 백화제, 부용거리 등 력사문화 거리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인문학적 분위기로 관광 명소로 부상,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휴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신화넷

## ‘축구공 따라 연변 관광’ 창의서

전 주 관광 관련 기업, 광범한 시민 여러분들께:

연변은 원래부터 ‘축구의 고향’이라는 미명이 있고 두터운 축구문화 저력과 무한한 활력이 풍부합니다. 이는 또 연변 문화관광의 대외적인 화려한 명함장으로 되었습니다. 근래 연변 ‘문화관광+’, ‘+ 문화관광’ 융합의 큰 구도가 점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하나의 산업이 모든 산업을 이끌고 모든 산업이 하나의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연변은 선후로 ‘가장 아름다운 중국·관광목적지 도시’, ‘중국 최고의 피서도시’, ‘중국 아름다운 생활도시—전국 10대 매력 목적지 도시’ 등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연변 ‘축구의 고향’과 ‘왕홍목적지 도시’의 ‘이중 브랜드’ 효과를 한층 더 확대하고 ‘축구관광경제’와 ‘관광경제’의 융합으로 관광, 음식, 숙박 등 소비를 촉진시켜 활력이 넘치는 연변 ‘축구+관광’ 신흥 경영방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에 즈음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창의서를 발부합니다.

‘축구+관광’ 융합발전의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2024년에 더욱 많은 축구팬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라지호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에서는 ‘축구공 따라 연변 관광’(跟着足球游延边)을 주제로 하여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주내 A급 관광풍경구, 급별 호텔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진으로 출범되는 7개 우

대혜택 관광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길중국조선족민속원, 연길공룡왕국, 룡정량전백세운동휴가풍경구, 비암산문화관광풍경구의 입장권 및 부분적 수급 항목은 4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중국 슈퍼리그 기간, 경기일 및 경기후 5일내에 풍경구 입장권 및 일부 비용 수취 항목을 구매할 시 20% 할인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할 때 홈장 경기 입장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2. 연길백산호텔, 연길홍국호텔(延吉红菊酒店), 카이로스호텔 등 3개 호텔 및 비암산 풍경구, 량전백세풍경구의 객실은 경기 당일 혹은 경기후 5일내 축구팬들에게 약 20% 좌우의 할인을 제공하며 예약 시 홈장 경기 입장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주내 각 A급 풍경구와 호텔들은 첫진으로 우대혜택을 출범한 관광기업을 본보기로 적극 호응하고 조속히 할인 혜택 조치를 내놓아 인기 많은 대중적인 스포츠 경기 활동의 영향력을 받아 연변 문명관광의 대명인으로 나섬으로써 ‘축구+관광’ 분야의 심층적인 융합을 다그쳐 추진함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연변 ‘왕홍 목적지 도시’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형상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문화의 고향’, ‘축구의 고향’에 힘을 이바지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호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2024년 4월 2일

## 헝헝 날아와 ~ 장춘시 제 1회 연축제 펼쳐



장춘시 제 1회 연축제가 남계문화관광타운(南溪文旅小镇)에서 펼쳐졌다. 4월 6일까지 지속된 이번 축제 기간 시민들은 연도 마을껏 날리고 미식도 맛보고 무형문화재도 감상했으며 일렉 뮤직(电音) 공연도 관람했다. 이의 주최측은 또 ‘가장 아름다운 연’ 촬영작품을 선정해 푸짐한 상품을 증정했다.

/ 류향회기자

## 도문 올해 문화관광 융합발전 추진

올해 도문시는 관광 봉사 수준을 높이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발전을 힘써 추동하기로 했다.

도문시친환경농업과학기술부화기지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생산에 투입시키고 일광산 발전 전광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일광산을 4A급 풍경구로 발전시킨다. 전 구역 관광구도를 개선하고 ‘302국도생태관광대’, ‘G331연변개방관광대통로’ 복선 배치 구도를 승격시킨다. 그 밖에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전람관을 승격 개조한다.

국문생태단지, 백년부락, 조선족문화박람회 등 단위의 봉사 수준 승격을 지도하고 다국경 관광, G331 자가운전 등 특색관

광 제품을 기획하며 두만강조선족문화박람회, 백년부락의 개원 준비를 다그친다. ‘두만강변 제 1도시’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문화관광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제 10회 중국두만강문화관광절을 개최하고 꽃구경축제, 단오절, 피서축제, 2024년—2025년 방설관광절 등 사계절 테마 주제활동을 개최한다. ‘장고춤의 고향’ 문화 IP를 구축하고 공공문화 봉사가 기층에 닿도록 함으로써 민생에 혜택을 준다. 2024년 김림성 ‘탁구협회’ 탁구 리그 등 전국, 성, 주 체육경기를 개최해 도문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한다.

/ 도문발표